

후루시초프의 망신

1961년 소련 수상 후루시초프는 미국의 젊은 케네디 대통령을 앞두고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첫마다에

“젊은 양반, 성경을 읽어 보았소?”

하고 물었다. 케네디는 카톨릭 신자였으므로 성경은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다.

“물론 성경은 많이 읽었소.”

“그 성경의 구약성서 창세기 가운데에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 아담과 이브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째서 그들이 공산주의자인가요?”

“그들은 에덴동산 낙원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허황한 생각을 하고 있는 후루시초프에게 케네디는 통쾌하게 응수해주었다.

“후루시초프 씨, 아담과 이브가 공산주의자라고요? 아! 그래서 그들은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었고, 먹을 것이 없어 겨우 사과로 끼니를 때웠고, 집이 없어 에덴동산에서 살았군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고 그런 비참한 사회를 낙원이라고 하는가 보군요.”

“.....”

후루시초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